

대입 매스터 플랜 준비는 9학년부터

외국어 공부 꾸준히 하면 합격 기회 ↑

벌써 한 달 후면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교들이 있다. 방학이 시작인가 했는데 어느새 개학이 코앞에 다가왔다.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9학년 학생들에게는 언뜻 대학 입학이 한참 후에 있을 일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미주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특히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9학년이 되기 전부터 계획을 짜야 한다. 사실 8학년이 끝나고 난 직후인 여름방학부터는 고교 과정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대학 진학을 위해 진지하게 매스터 플랜을 세워야만 하는 시기다.

성공적인 명문대 입학은 두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 즉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과 경험을 끌고나갈 능력, 다시 말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품격과 행동이다. 우리 자녀들은 성적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성, 열정, 개인의 에너지,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주변의 이웃이 좋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학부모가 9학년 성적을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9학년부터의 성적도 요구한다. 물론 10학년과 11학년 성적이 더욱 중요하지만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9학년 진학생들은 명문대 입학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학년에서 연결되는 과목

능하다면 따로 만나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목표를 하고 있으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해보자.

만약 학교 카운슬러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사설 컨설턴트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보라.

그리고 제2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대학은 글로 벌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전 학년을 통하여 외국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가장 도전적인 코스를 택하고 있다면 대입에서 그만큼 기회가 상승한다. 많은 학생의 경우 점수 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어의 AP 과목을 듣는 것을 꺼리는데 보다 도전적으로 가장 높은 코스를 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대학 후의 생활에서도 자신의 격을 높일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UC가 SAT II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AT I 만을 공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명문 사립대들의 경우 SAT II 서브젝트 테스트도 SAT I과 똑같이 가치 있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PSAT, 대입시험 준비와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 계획을 세워 준비하자. 많은 대학에서 SAT 테스트의 스코어 초이스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측에 낮은 점수를 리포트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며, 리포트를 했을지라도 대학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만을 선택해서 입학사정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받은 낮은 점수에

어나도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다. 충분한 양의 독서를 할수록 어휘력, 사고력과 함께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된다. 잡지와 신문 구독 또한 단어 구사력과 언어능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본격적인 고교생활에 앞서 앞으로 어떻게 고교 생활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남아 있는 여름방학을 학생들이 자칫하면 할 일 없이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다.

여행을 하거나 봉사활동이나 운동, 음악캠프 참가 및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 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자신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과외활동들을 미리 찾아보자. 자녀가 진학하는 고교에 어떤 과외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또 어느 것이 자녀에게 맞는 활동인지 여름방학 동안 혹은 캠프가 제공된 것은 아닌지 등 진학하는 고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학은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리더십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다. 학교 밖에서의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도 좋고 지역사회 단체나 행사 등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자녀에게 고교 생활에서의 기록을 위해 바인더를 준비해주자. 그 안에 성적을 비롯하여 상장이나 과외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

한 기본 실력을 만들어 부담이 없어진다. 고교생활을 학과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를 바란다.

고교 신입생이 되면 각자에게 담당 카운슬러가 있다. 학년마다 클래스 스케줄을 정할 때 말고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 대부분인 카운슬러를 가

내년에 신청한 과목에서 자녀가 부족한 영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다.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거나, 개인 교사를 찾거나 온라인 무료 학습 등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좋은 성적과 아울러 독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학습 능력이 아무리 뛰



리처드 김
대입 컨설턴트
어드미션 매스터즈